

“남대천 주변 국내 최고 명소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추진

무주군, 경관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위한 주민설명회 가져... 7월 착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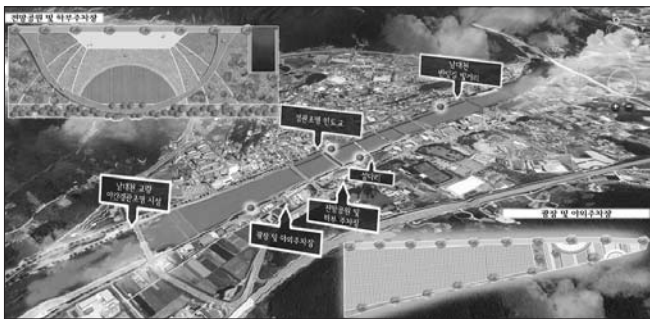
남대천변의 수려한 경관자원을 기반으로 '아름다운 빛과 테마가 있는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 될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이 올해 본격 닦을 올린다.

무주군은 2일 오전 무주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용역사 관계자를 비롯해 무주군 관계자,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갖고 올해 사업을 알렸다.

이날 마련된 주민설명회는 오는 7월 착공을 앞두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설명회는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 사업구상과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자 설명과 주민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사업 착공에 앞서 다음 달까지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본 사업을 위한 본격 행보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은 총 사업비 194억원(도비 138억원 포함)을 들여 무주군 무주를 남대천 일원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빛과 테마가 어우러진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아름다운 빛과 테마가 있는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 될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이 올해 본격 닦을 올린다.(전망휴게공간과 주차장 현황)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은 ▲반디테마 빛 거리 조성, ▲남대천 주변 야간경관조명, ▲경관인도교 설치(보도교량/출렁다리) 등을 조성하며 ▲빛조명 체험 존 등도 마련한다.

이밖에도 휴게공간을 비롯한 빛 거리 경관문화 콘텐츠를 구축하며, 주차장과 빛 거리 버스킹 공연장을 갖춘 기반시설 등도 확충할 계획이다. 군은 무주의 청정자연 환경과 지역의 고유 역사문화, 그리고 무주를 찾

는 관광객 트렌드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관광기반시설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다.

황인홍 군수는 "야간환경 조성과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 유입은 물론 체류시간 증대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을 토대로 남대천 주변을 국내 최고의 관광명소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민이 평가하는 진안군수 공약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율 지난해 12월말 기준 50% 달해

진안군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율이 지난해 12월말 기준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안군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단장 배병욱)은 3일 전춘성 군수가 군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전체회의를 통해 평가한 결과 이와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군민배심원단은 군수공약에 대해 공약이행정도를 공정하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발대식을

갖고 출범한 뒤 지난해 15일부터 17일 동안 수차례의 분과회의를 거쳐 평가한 결과를 이날 최종 의결했다.

평가 결과를 보면 총 33개 사업 중 지난해 완료된 사업은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 농림축산분야 국 신설 등 8개 사업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임대료 지원, 치매안심돌봄시스템 구축, 청년미래지원센터 신설, 청년주거비용 지급

등 15개 사업도 올해 안에 완료를 목표로 순항 중이다.

이와 반대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주민 연료비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열린진안정책위원회 운영 등 10개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례 제개정 등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면서 일부밖에 추진되지 못해 미진사업으로 평가됐다.

공약이행평가 외에도 ▲진안형 농축임산물 통합브랜드 판매시스템 구축, ▲청년미래지원센터 신설, ▲진안사람 천년 배움 등 5개 사업에 대해 목표를 재설정해 연도별로 추진 실적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통해 공약사업의 이행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변경 승인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 도상훈련

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지난 2월 10일 개청이후 진안군에 대형 재난 발생 시 각 부별 임무 숙지, 체계적인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첫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훈련 참가자는 방열체크, 손소독 등을 실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참여 했다.

훈련은 진안군 중점관리 대상인 마이콤유치원을 대상으로 했다. 화재 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고 유치원생과 관계자 대피 지원 상황을 가정해 불시 훈련 메시지를 부여하며 진행됐다.

오정철 서장은 "진안군에 소방사가 개청하며 실시한 첫 도상훈련을 시작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재난현장의 특



성에 맞춰 상황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훈련을 추진하고 실제 재난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농업인 20인 이상 참여하는 마을에 비용 지원

장수군이 일손이 바쁜 농번기철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공동급식을 추진한다.

3일 장수군에 따르면 농번기 공동급식은 바쁜 농번기에 여성농업인의 급식 준비와 영농참여로 가중되는 근로 부담을 해소하고 영농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농업인 20인 이상 참여하는 마을에 공동급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총사업비 1억5,600만원을 투입해 총 49개 마을별로 320만원을 지원한다.

담초 마을회관(경로당)에 조리원을 두어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마을회관 내에서 급식을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소독, 거리두기 등 감염 예방수칙 준수 하에 도시락 배달 또는 식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변경해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마을이 지역

도시락 업체와 식단을 이용할 예정으로, 일손 돕기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공동 취사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마을, 농촌지역 외의 마을(시군 조례 등으로 규정), 국비 지원사업, 시군 자체사업을 지원받는 마을(단,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에 시군에서 부식비 등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영수 군수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예전처럼 마을회관에 모여 이야기 나누며 정겹게 식사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워졌지만 농급식 준비로 인한 농업인들의 영농작업 중단으로 생산성 저하 및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실적으로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산불감시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진안군은 산불감시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산불 예방에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 1월 산불감시원 61명을 체력검정 등을 통해 선발하고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산불감시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산불감시원들의 역량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3일 양일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진안군 산불감시원 61명을 대상으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북지회 소속 전문 강사가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산불감시원은 산불예방 및 진화방식에 대한 기초지식과 안전수칙 등을 습득했으며, 산불진화 장비, GPS단말기 등을 직접 실습해보면서 장비사용법을 터득하게 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교육을 수료한 산불감시원들은 각 읍면에 배치되어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수행하며, 산불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도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군민들에게 '논밭 태우지 않기' 등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등 산불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큰 산불이 많이 발생한 가운데도 진안군은 올해 단 한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 적극적인 산불예방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이다.

이와 함께 산불감시원 역량강화 교육에 이어 산불진화대 43명에 대한 교육도 가질 예정이며 5월 15일까지 예정된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소식 통

무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무공·안성분소 추가 운영

무주군이 올해도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장 무공·안성분소를 추가 운영하고 반값에 농기계를 임대한다.

이를 위해 군은 8억8,000여만원(국비 1억3,000여만원 포함)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소를 비롯한 무공분소, 안성분소에 근무자 14명을 배치했다. 무공과 안성분소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토요일에도 근무하며, 무공 분소는 휴일 없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무공 분소와 무공·안성분소에는 관리기, 퇴비살포기, 굴삭기 등 총 75종 418대의 임대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3,861농가가 이용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전체 마을 방법 CCTV 확대 설치

장수군은 군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방법 CCTV를 확대 설치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올해부터 4년 동안 184개 마을에 CCTV 575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올해는 3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CCTV 88대를 설치한다.

설치된 마을방법 CCTV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어 365일 24시간 모니터링되며, 농촌지역 침입 절도 범죄와 차대 노인 가출 사건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장수군 CCTV 통합관제센터(관제요원 12명, 경찰 1명)는 CCTV 151개소 405대를 실시간 관제하며 각 종 범죄 예방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마을방법 CCTV 확대 설치는 농촌마을 범죄 예방과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지역을 적극 발굴하여 방법 CCTV 설치하고 실시간 관제 모니터링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